대구신문

2007년 02월 20일 006면

"2020년 대구 이렇게 변한다"

기본계획안 건교부 승인 거쳐 확정…미래동력 기틀마련

대구의 미래성장동력 기틀이 될 '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'이 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.

대구시는 지난해 연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'2020 대구도시기본계획'을 20일자 시 공보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최종 확정한다고 19일 밝혔다.

시는 2020년을 향한 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'대구도시기본계획(안)'을 마련, 지난해 3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한 뒤 9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.

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목표년도의 계획인구가 당초 280만명에서 275만명으로 조정됐으며,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세천지방산업단지 조성, 혁신도시 건설 등 주요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모두 원안대로 반영됐다.

또 도시공간구조와 관련, 당초 1도심(중부), 1신도심(동대구)으로 신청했지만 2도심으로 변경돼 2020년 대구의 도시공간구조는 2도심(중부·동대구), 4부도심(칠곡·안심·달서·성서), 1신도시(현풍)로 변모한다.

옥포~동명간 고속국도 구상(안)과 대구~광주간 광역철도 구상(안)은 각각 국가계획 미반영 등의 이유로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.

시는 대구를 영남권의 중심도시, 동남권의 R&D 거점도시, 환동해 경제권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도시의 미래상을 '세계로 열린 매력 있는 문화·기술도시'로 정하고, 이 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3월 중으로 주민들과 시 의회 의견청취과정을 거쳐 6월께 마무리할 방침이다.

대구시 관계자는 "2020년을 향한 대구도시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대구의 미래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했다"며 "일반인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'2020 대구도시기본계획' 보고서 전체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최태욱기자 choi@idaegu.co.kr